

## 아동의 사건기억 회상에 대한 인지면접의 유용성

권 영 민      이 춘 재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아동의 증언 및 사건 기억의 보고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험실 원리에 토대를 둔 인지 면접(Cognitive Interview; CI) 기법의 유용성 및 기억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4세, 6세인 84명의 아동들로, 각각의 학급에서 낯선이의 방문사건을 경험하였다. 그런 뒤에, 그 사건에 대한 회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동들에게 인지 면접과 표준 면접을 적용하여 면접하였다. 그 결과, 인지 면접을 받을 경우에 6세 아동들은 4세 아동들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회상할 수 있었고, 4세 아동들은 표준 면접을 받았을 때에 인지 면접을 받았을 때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회상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4세, 6세 아동들 모두 인지 면접을 받았을 경우에 부정확한 반응이 유의미하게 적게 산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나이 어린 아동들에게 인지 면접을 적용했을 경우의 유용성과 한계 및 이후에 법적 장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면접 절차(혹은 기법)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동의 기억발달, 사건기억, 회상, 인지면접, 표준면접

최근 서양과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성적 학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그리고 아동에게 목격된 범죄 문제들이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Gray, 1993; 김준호, 김선애, 1997). 이러한 사건을 법적으로 다루는 데에 있어서, 아동이 회상하는 기억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로운가가 법정의 판결에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된다. 아동들이 관여된 많은 판례들에서, 아동의 증언은 일관성 없고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무시되어온 경우가 많았다. 그 예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아동 학대 재판에서 아동 피해자가 승소한 경우는 3사례에 불과하다(SBS, 2003).

아동의 법정 진술이나 증언에 있어서의 정

---

실험에 참여해준 ASE Center와 동구로초교 어린이와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신저자: 권영민, E-mail: ksky86@catholic.ac.kr

확성 및 신뢰성과 관련된 연구 영역은 크게 두 영역의 연구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아동의 기억능력과 언어적인 표현능력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Bauer & Wewerka, 1997; Fivush, 1998; Nelson & Gruendel, 1981)이고, 다른 하나는 암시성과 면접자 편향에 관한 연구들이다. 더 많이 주목되고 있는 연구 영역은 후자의 것이다.

최근, 면접자 편향에 대해 연구한 Leichtman과 Ceci(1995)는 면접자가 암시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아동은 암시나 고정관념과 상응하는 기억을 보고하는 기억에서의 오류가 일어남을 보고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아동은 사건을 경험한 후 면접자들이 아동에게 편향을 일으킬 수 있는 질문을 반복 질문하게 될 때, 아동은 암시를 받게 되거나(Bruck, Ceci, Francoeur & Barr, 1995; Ceci & Bruck, 1993; Ceci, Ross & Tolia, 1987), 허위보고를 하게 되었다.

서구와 달리,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학대와 같은 외상적인 경험을 회상하는 것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이 척박한 상태이다. 이러한 학문적 연구의 결핍은 아동들의 기억 보고 혹은 진술의 정확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과거에 많은 연구들이 목격 기억의 수행을 검증해왔지만(Loftus, 1979; Wells, 1978; Yarmey, 1979), 심리학 연구는 아동이나 성인 목격자 증언의 제한점에 대해 알리는 데에 있어서는 가치있는 기여를 해온 반면, 반복되는 면접이나 수사로 인해 괴롭힘을 받는 목격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는 관심을 덜 기울여왔었다. 최근에는 목격 보고의 완성도(completeness)를 최대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질문 기법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Fivush(1998)도 아동이 어떤 사건에 대해 대화하거나 보고할 때, 면접의 방법이 아동의 사건기억을 발달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에, 기억 보고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면접 절차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Fisher, Geiselman, Raymond, Jurkevich & Warhaftig, 1987; Geiselman, Fisher, Firstenberg, Hutton, Sullivan, Avetissian & Prosk, 1984).

그 중, Geiselman, Fisher, Firstenberg, Hutton, Sullivan, Avetissian 및 Prosk(1984)은 인지 심리학의 실험실 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는 새로운 면접 기법을 개발했다. 그들은 목격자에게 면접할 때에 인지 심리학의 기억 회상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질문 절차를 개발하였고, 이 기법을 인지 면접(Cognitive Interview: CI)이라고 명명하였다. Geiselman 등이 1984년에 첫 판(original)을 개발한 이후에, Fisher, Geiselman, Raymond, Jurkevich 및 Warhaftig은 1987년에 인지 면접 개정판(revised)을 발표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이 기법은 재판전 면접, 예심 등에서 피해자나 목격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이 기법은 편파되어 있지 않아서, 법정의 소송 절차에 관여된 모든 부분의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인지 면접은 목격자 회상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인지 면접이 전통적 표준(경찰) 면접보다 약 20-35% 더 효율적이라고 밝히고 있다(Fisher, Geiselman, Raymond, Jurkevich & Warhaftig, 1987; Geiselman, Fisher, MacKinnon & Holland, 1985, 1986; Saywitz, Geiselman & Bornstein, 1992).

Geiselman 등(1984)과 Fisher 등(1987)에 의

해 개발된 인지 면접은 4가지의 일반적인 인출 기억 방법과 더 특수한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가지 일반적인 기억 방법 중에서, 2가지는 부호화와 인출 맥락 사이에 중복되어 있는 세부특징을 증가시키려는 시도이다 : (a) 범행(혹은 사건) 당시에 있었던 환경적 그리고 개인적 맥락을 정신적으로 회복시키는 것, (b) 정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중요도에 관계없이, 심지어 부분적인 정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보고하게 하는 것. 나머지 2가지 기억 방법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인출 경로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 (c) 다양한(혹은 반대의) 순서로 사건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 (d) 다양한 조망(관점)으로 사건을 보고하는 것.

아동의 기억 발달 연구들은 반드시 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나이 든 아동들이나 성인들에 비해 나이 어린 아동들의 보고는 다소 불완전하다고 밝히고 있다(Chi & Ceci, 1986; Marin, Holmes, Guth & Kovac, 1979; Saywitz, 1987). 그리고 아동들은 주변적인 세부사항에 대해 잘못 유도된 질문을 받을 때 몇 가지 오류를 가지기는 하지만(박자경, 이승복, 1999), 더 많은 정보가 나오기도 한다(Loftus & Davies, 1984; Zaragoza, 1987). 국내의 경우에도 박자경과 이승복(1999)이 아동이 진술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도 질문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안했듯이, 회상의 오류를 줄이면서 아동의 보고 완성도를 최대화시키는 질문 기법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들이 성인의 암시에 의해 유도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접 기법이 요구되어 왔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지 면접과 같은 질문 형식은 기억 탐색을 안내해주기 때문에 아동

목적자에게 유용하다고 신뢰할만한 근거를 대고 있다. 기억 탐색을 안내할 때, 인지 면접은 외현적인 인출 전략, 구체적인 인출 단서 그리고 정보를 조직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한다. 비록 나이 어린 아동들의 기억 전략이 제한적이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산출하고 스스로 사용할 수는 없더라도, 그들이 인출할 때에 성인에 의해 제공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Schneider & Pressley, 1989; Weinert & Perlmutter, 1988).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인지 면접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Geiselman과 Padilla(1988)는 7세 12세 아동들에게 녹화된 이야기를 보여준 다음에, 개정판 인지 면접 기법을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인지 면접은 표준 면접보다 21% 더 정확하게 정보를 산출하였으나, 오류나 꾸민 반응에 있어서는 표준 면접에서의 수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Geiselman 등(1985)이 성인 대상으로 인지 면접의 효과를 밝힌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아동의 수행이 표준 면접보다 인지 면접에서 향상을 보였으나, 아동의 인지 면접 수행과 표준 면접시의 성인의 수행을 비교해보면 그 정반응의 수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인지 면접이 성인 목적자에게 사용될 때, 더 효율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까닭은, 아동의 부호화 혹은 기억이 열등한 것에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면접 시간이 성인이 면접에 쓴 시간보다 덜 소요되었거나 아동이 성인보다 인지 면접 기법을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cCauley와 Fisher(1995)도 86명의 2학년 아동들에게 개정판 인지 면접 절차를 이용하여 인지 면접이 아동의 목격 회상을 촉진시키는지를 그리고 지연된 면접 후에도 면접 절차에 따른 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동들은 낯선 성인과 일련의 게임을 하는 상황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뒤, 면접을 해보니 인지 면접을 받은 아동들이 표준 면접을 받은 아동들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회상하였다. 2주 지난 후 면접을 했을 때에도 같은 결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인지 면접을 받은 아동들은 2주 지난 후에도 더 새로운 정확한 정보를 많이 회상하였다. 그러나 인지 면접 기법은 부정확하거나 틀린 정보도 많이 산출하였다.

Hayes와 Delamothe(1997)는 5-7세와 9세-11세 아동들에게 첫판 인지 면접 절차를 적용하여 잘못 유도된 암시가 아동들의 회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동들은 모두 녹화된 이야기를 보았고 그 뒤에 이야기의 세부사항과 관련된 잘못 유도된 정보 혹은 중성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자유회상 검사와 단서회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지 면접 절차가 회상의 정확성을 증가시켰으나 인지 면접을 받았던 아동들이 표준 면접을 받았던 아동들보다 오반응과 꾸민 반응을 더 많이 산출하였다.

Saywitz, Geiselman 및 Bornstein(1992)은 아동의 회상 능력에 있어서 개정판 인지 면접 절차의 효과에 대해 알아봤다. 7-8세 아동들과 10-11세 아동들에게 낯선 남성과의 개별적인 만남을 갖게 하였다. 그런 후에, 회상을 할 때에 인지 면접을 받았던 아동들이 표준 면접을 받았던 아동들보다 정확하게 더 많은

정보를 회상하였고 부정확한 반응의 수도 증가하지 않았었다.

위에 언급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5세 이상부터 12세 아동들에게 인지 면접을 적용하여, 그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연구에 임한 아동들의 연령 범위가 광범위하여 인지 면접의 유용성을 밝힐 수는 있었으나, 발달 단계에 따른 면접의 적합성 여부는 제대로 밝힐 수 없었다.

이에, 아동들의 연령을 더 세분화시켜 인지 면접 절차의 효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Chapman과 Perry(1995)는 4-5세 아동들에게 녹화된 교통사고를 접하게 한 뒤, 인지 면접 절차로 측정한 결과 4세만 큼 나이 어린 아동들도 부정확한 보고를 증가시키지 않고 회상의 정확성을 향상시켰으며, Holliday(2003)도 4-5세와 9-10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지 면접이 정확한 회상을 촉진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는데, 9-10세 아동들뿐만 아니라 4-5세 만 큼 나이 어린 아동들도 정확한 세부사항을 보고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 때 아동들에게 사용된 인지 면접은 개정판 인지 면접 절차 중, 나이 어린 아동들에게 특히 더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관점바꾸기’ 지시사항을 제외시킨 절차였다.

반면에, Memon, Cronin, Eaves 및 Bull(1993)의 연구는 6-7세 아동들에게 개정판 인지 면접 절차로 면접한 결과, 회상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없었으며 7세나 그보다 어린 연령의 아동들이 관점 바꾸기와 같은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따르기 어렵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인지 면접 절차를 이용하여 아동들이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인출해낼 수 있음을 밝힘과 동시에, 인지 면

접 절차는 부정확한 정보의 양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나이 어린 아동들에게 인지 면접을 적용할 경우에 다소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이 발견되었다. 그 까닭은 첫째 인지 면접 절차를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개정판 인지 면접 절차를 사용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개정판 인지 면접 절차를 우리나라 아동에게 적용하여 그것이 정확한 혹은 부정확한 정보의 회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실험 장면이 아동 참여·아동목격의 한 쌍으로 이루어진 엄격하게 통제된 실험실적 상황이거나 녹화된 이야기를 관찰하는 정도였으므로, 아동들이 실제 생활에서 비의도적으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사건에 대한 회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아동학대, 아동의 성추행, 납치, 처벌과 같은 범죄 현상은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렇게 실생활에서 사건을 경험한 이후의 아동의 회상, 증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지 면접에 포함되어 있는 4가지의 인출 방법은 상황이나 맥락을 재구조화한다는 측면에서 면접 기법으로 유용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Pressley와 Levin(1980)은 심상 지시 사항이 아동의 회상수행을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Dent(1982)도 아동 목격자를 대상으로 그런 기법을 제안했다. 가령, 단순히 모든 것을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른 아동의 자발적인 보고는 성인들의 보고보다 덜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Chi & Ceci, 1986; King & Yuille, 1987; Marin, Holmes, Guth & Kovac, 1979). 게다가, 아동들은 법적 체제에 대해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수사의 가치에 대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법정 맥락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들에게 상황을 재구조화하는 지시사항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이 인지 면접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사건을 시간적으로 회상하는 능력 그리고 조망 수용 능력 등은 발달 단계와 관련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Brown, 1975; Fravell, 1986; Piaget, 1969). 그래서 회상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에, 이런 기법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아동들의 능력에 있어서의 발달차이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지 면접 절차의 도움은 아동 증언의 완성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지금까지 개관한 것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 개정판 인지 면접 절차를 우리나라의 4세~6세 아동들에게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 정확한 반응을 더 많이 산출하여 인지 면접 기법의 효과가 검증될 수 있는지 아니면 발달상의 미숙함이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른 결과를 보일 것인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둘째, 인지 면접이 다양한 연구에서 표준 면접보다 20%~28% 정도로 더 정확한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여 아동 목격자들이 법적인 문제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인출되는 정보는 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부정확한 혹은 꾸며낸 정보도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인지 면접에서의 자유회상이 정확한 반응의 수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부정확한 반응이나 꾸민 반응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들이 인출한 정확한 정보를 범주화하여 세부사항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연령에 따라 인지 면접의 효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지 면접 절차의 효율성을 검증한 최근의 연구들은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혼재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결과들을 다소 세분화하여 구체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Milne와 Bull(인쇄중)는 8세-9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지 면접의 회상 결과를 사람과 행위라는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그 정확성을 살펴보았으며, Holliday(2003)도 4-5세와 9-10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지 면접이 정확한 회상을 촉진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정반응을 사람, 행위, 사물 등의 범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면접 시에 보고되는 정반응의 세부사항을 평가해봄으로써, 어떤 면접이 정보를 인출시키는 데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인지 면접이 표준 면접보다 정확한 반응을 더 많이 회상하게 하는가 ?
2. 인지 면접이 표준 면접보다 부정확한 반응을 더 적게 산출하게 하는가?
3. 인지 면접과 표준 면접의 효율성이 연령에 따라 그리고 정확한 반응의 범주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인가?

## 방 법

### 참여자

2003년 4월 현재, 서울시 소재의 초등학교 1학년 2개 학급의 만 6세 아동 64명, 경기도

소재의 어린이집 2개 학급의 만 4~5세 아동 44명으로, 전체 108명의 아동들이 참여하였다. 그 중에서, 낯선이의 방문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15명), 지각을 해서 방문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거나(2명), 발달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2명), 면접에 응하지 않았다(5명)고 한 24명의 결과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낯선이의 방문사건을 기억하지 못한 아동들의 수가 많았다. 낯선이가 교실을 방문했을 때의 상황을 녹화한 장면을 분석해본 결과, 낯선이의 방문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대체로 낯선이의 방문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신이 하던 일(예> 과제하기, 뒤를 보고 돌아앉아 친구와 계속 이야기하기 등의 행동)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담임교사의 주의에도 별로 개의치 않았다. 따라서 녹화 테이프에서 낯선이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아동들과 면접에서 낯선이의 방문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함께 검토하여, 그 두 가지가 모두 일치하는 아동들의 자료를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1. 면접유형에 따른 사례수

|      | 4세 |    | 6세 |    | 전체 |
|------|----|----|----|----|----|
|      | 남  | 여  | 남  | 여  | 84 |
| 인지면접 | 13 | 8  | 7  | 12 | 40 |
| 표준면접 | 9  | 12 | 12 | 11 | 44 |

초기에, 각각의 면접 조건에 54명씩 무선 할당되었으나, 위와 같은 이유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서, 인지 면접 조건에 40명, 표준 면접 조건에 44명으로, 84명의 아동들의 자료가 분석되었다(표 1 참조). 4세 아동들의 연령범위는 4세 1개월~5세 7개월(평균연령=4세 9개월), 6세 아동들의 연

령범위는 6세 1개월~7세 1개월(평균연령=6세 6개월)이었다.

## 면접자

면접자는 심리학과 대학원에서 발달 심리학을 전공하고 아동상담기관이나 복지관 등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2년 이상의 심리검사와 심리치료 경험이 있는 4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4명의 면접자들은 인지 면접과 표준 면접 조건 중의 한 조건에 2명씩 무선 할당되었다. 모든 면접자들은 실험목적 및 낯선이의 방문 사건의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본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연구자와 함께 2명의 인지 면접자는 인지 면접으로, 2명의 표준 면접자는 표준 면접으로 각각의 면접 방법에 대해 지시사항을 익혔고 훈련하였다. 특히 개정판 인지 면접에 필요한 훈련의 양에 대해 Fisher와 Geiselman(1992)은 2주간의 훈련 스케줄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면접이 시작되기 1주 전에 집중적으로 주 3회(1회당 4시간) 총 12시간의 훈련을 거쳤다.

훈련의 첫 번째 부분은 일반적인 면접 기술(예> 아동과의 라포 형성, 처음에 개방형 자유회상으로 질문하는 것, 이야기하는 중에 중지시키지 않는 것, 유도 질문을 피하는 것, 휴식을 허용하는 것, 적극적 경청, 언어적-비언어적 강화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것이 언급된다. 이런 일반적인 기술은 인지 면접자와 표준 면접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훈련 패키지의 일부이다.

훈련의 두 번째 부분은 인지 면접자와 표준 면접자들 각각으로 진행되었다.

인지 면접자에 대한 훈련은 인지 면접의 특수한 요인이나 기법에 기초한 것이다. 훈련은 여러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면접의 중요성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훈련의 앞부분에, 인지 면접자들은 인지 면접으로 면접한 한 사례(Fisher & Geiselman, 1992)를 읽었으며, 인지 면접의 기억술적 책략과 다른 요소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았고 그들에게 이런 기법들을 세세하게 설명하였다. 이 기법에는 사건에 대한 맥락을 회복시키는 것, 한 가지 과제로 초점을 집중시키는 것, 다양한 인출을 시도해보는 것, 회상 순서를 변화시키는 것, 심상, 질문을 바꾸어 말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덧붙여, 특수한 인출 전략은 이름, 숫자, 옷 그리고 신체적 외양에 대한 회상을 돕는다.

훈련의 뒷부분에, 인지 면접의 인출 전략에 관한 설명이 있는 면접 질문과 대답의 구문 실례를 제공하고 학습하게 하였다. 그런 뒤에, 2명의 면접자는 서로 면접의 실례대로 역할-연습을 하였고, 서로의 수행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후에, 면접자들의 수행에 관해서 훈련자인 본 연구자가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면접자들에게 그들이 할 과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고 어떤 식으로든 유도 질문을 피하라고 강조하였다.

표준 면접자에 대한 훈련은, 인지 면접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면접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훈련 앞부분에, 표준 면접자들은 표준 면접으로 면접한 사례를 읽었다. 또한 면접에서 허용되는 몇 가지 요인(예> 휴식을 허용하는 것, 언어적-

비언어적 강화를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일러주었다.

이외에도, 표준 면접자들에게 면접의 적절한 구조와 다양한 질문 유형(예> 선다형 질문, 개방형 질문, 유도 질문)에 대해 알려주었으며, 면접의 질문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그리고 아동의 다양한 행동 양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광범위한 조언을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표준 면접으로 이루어진 질문 유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면접 질문과 대답의 구문 실례를 제공하였다.

2명의 면접자는 서로 표준 면접의 실례대로 역할-연습을 하였고 서로의 수행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 후에, 면접자들의 수행에 관해서 훈련자가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면접자들이 해야 할 과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고 어떤 식으로든 유도 질문을 피하라고 강조하였다. 인지 면접의 특별한 인출 기법을 제외하면, 훈련 절차는 양쪽의 면접자들에게 동일하였다.

## 실험 절차

아동들이 학교 혹은 어린이집에 도착하여 정규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각 학급에 낯선이가 짧은 시간을 방문하여 일련의 행동을 하게 되고 아동들은 낯선이의 방문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다.

낯선이의 방문사건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낯선이는 입실하여, 인사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 뒤에, 교실에 온 까닭(예> 공부하는 모습을 사진찍으려고 왔다는 것)을 아동들에게 말한다. 그런 뒤에, 정해진 일련의 행동(예>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2번

의 사진을 찍고, 교실 뒤편에 가서 게시판을 구경)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교사와 아동들에게 끝인사(예> 사진을 찍게 해주어서 고맙다는 것 등)를 하고 퇴실하는 과정이다. 각 학급의 교사들에게는 낯선이의 방문사건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공하였고 그 시나리오에 있는 대화 내용대로 낯선이와 상호작용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7분 정도이다.

본 연구자는 낯선이의 역할을 맡은 남성 실험협조자에게 아동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접하게 하는 방문사건에 대한 이해를 시켰고 일련의 동작과 행동을 연습시켰다. 각 교실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여 낯선이가 방문할 때에 낯선이의 행동과 아동들의 모습을 녹화하였으며, 이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는 이후에 면접에서 아동의 회상의 정확성 여부를 채점하기 위한 평정의 기초자료로 이용되었다.

낯선이의 방문사건이 종료된 후 3시간 내에, 아동들은 인지 면접과 표준 면접으로 무선 할당되어 개별적으로 면접을 받았다. 일인당 면접 시간은 약 10분 14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개별적인 면접이 종료된 후에, 실험에 참여한 아동들에게 간단한 선물을 주었다.

## 면접 유형

면접은 개정판 인지 면접과 법적 장면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경찰의 표준 면접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모든 면접의 초기에는 아동이 면접 상황과 면접자에 대해서 긴장감을 해소하고 충분히 이완될 수 있도록 면접자와의 라포 수립을 위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모든 면접자들은 아동에게 면접자 자신을 소개한 후에, 아동의 이름을 묻거나, 아동과 관련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함으로써(예> “당신의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혹은 “당신이 좋아하는 놀이는 무엇인가요?” 등), 아동의 불안을 해소시킨다. 또한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추측해서 대답하기 보다는 “몰라요.” 혹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쓸 수 있음과 면접자가 한 가지 물음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었다.

### 인지 면접

인지 면접은 Geiselman과 Padilla(1988)의 연구에 의해 수정된 인지적 기억 인출 기법으로 4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어떤 사건에 대해 회상을 해내기 전에, (a) 사건(혹은 범행) 당시에 있었던 환경과 개인적 맥락을 마음에 재구조화하는 것이다(예> “교실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교실에 불이 켜져 있었나요 아니면 꺼져 있었나요?” 혹은 “그 때, 교실에는 어떤 물건이 있었나요?” 등). 그렇게 사건에 대한 시각적 심상을 형성한 뒤에, 자유회상 방식으로, (b) 중요도에 관계없이, 사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 때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보고하게 한다(예> “교실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일어났던 일을 차례대로 말해주면 되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다 말해주세요.” 등). 그런 다음에, (c) 사건을 다양한(혹은 반대의) 순서로 자세히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고(예> “지금까지 당신이 이야기한 것을 거꾸로 말해주세요. 교실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의 이야기를 맨나중부터 거꾸로 말해주세요.” 등), (d) 사건을 다양한 조망(관점)으로 보고하는 것이다(예> “이번에는 당신이 교실에 들어왔었던 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되어서 일어났던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등). 이 2가지 기억 방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출 경로를 특수하게 촉진시키는 방법에 속한다. 인지 면접 조건에 할당된 면접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아동들을 면접하게 된다.

이 과정을 다 마친 뒤에, 면접자들은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질문 기법으로 앞서서 아동이 말한 반응이나 불분명하게 한 반응에 대해 자세한 개방형 질문을 하게 된다. 이것은 표준 면접 조건에서 묻게 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 표준 면접

표준 면접은 법적 장면에서 실제 행해지는 경찰 면접으로, 우선, 아동들(혹은 목격자)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그들의 말로 기술하게 하는 것(일종의 개방형 자유회상)이다(예> “당신이 교실에 있을 때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 있었던 일을 말해주세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다 말해주세요.” 등). 그런 다음에, 아동들(혹은 목격자)의 자유회상 진술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다. 즉 아동들이 자유회상 단계에서 언급했던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해 정교화하도록 질문하는 과정이다.

면접자는 아동들이 그 사건에 대한 모든 기억을 남김없이 드러냈다고 보일 때까지 개방형 질문을 계속 진행시킨다.

## 분 석

녹화된 면접은 녹화된 그대로 면접 원문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뒤, 본 연구자에 의해 훈련된 3명의 연구보조자는 녹화된 낱선의 방문사건을 토대로, 각각의 면접 원문을 정반응수, 오반응수, 꾸민 반응의 수로 평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정반응수는 사람, 사물, 사건이라는 3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채점한 것을 모두 합친 정확한 반응의 개수이다. 사람 범주는 옷, 태도, 신체적 외모와 관련된 사실, 말하는 특징 등과 같은 것이다. 사물 범주는 사건에 사용된 소품과 관련된 것이다. 사건 범주는 사건과 관련된 움직임이나 내용, 다른 사람과의 접촉, 대화, 사건의 일반적인 순서 등과 같은 것이다. 오반응수는 원래의 내용에서 벗어나 부분적으로 맞는 것, 원래의 내용이 과도하게 압축된 것, 원래의 내용과 다른 것 등을 채점한 부정확한 반응의 개수이다. 꾸민 반응수는 원래의 내용에는 있지 않은 반응이 추가되거나 만들어진 반응들을 말한다. 그 이외에, 아동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감정이 들어간 반응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예> 멋있었다, ~인 것 같았다 등).

표 2. 면접 유형별 반응시간(분)

| ( )은 표준편차 |             |             |             |
|-----------|-------------|-------------|-------------|
| 면접조건      | 4세          | 6세          | 전체          |
| 인지면접      | 14.02(2.13) | 13.31(2.32) | 14.08(2.22) |
| 표준면접      | 12.31(1.23) | 11.17(2.09) | 11.52(1.52) |

평정자들은 면접 유형에 대해 모르는 상태이며, 개별적으로 채점하였다. 또한 본 결과를 평정하기 전에 약 20사례를 가지고 연습

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일치하도록 하였다.

## 결 과

### 성별, 면접 유형에 따른 예비분석

#### 성별로 본 예비분석

전체 변인 중, 성별 변인으로 정반응수, 오반응수, 꾸민 반응수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세 가지 반응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F(1, 82)=0.75, n.s.$ ,  $F(1, 82)=0.32, n.s.$ ,  $F(1, 82)=0.66, n.s.$  그러므로, 전체 결과는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참여자 전체로 분석하였다.

#### 면접 시간에 대한 예비분석

두 가지 면접 유형을 살펴보면, 인지 면접이 표준 면접보다 2가지 정도의 기억인출 과정을 더 포함하고 있으므로, 면접시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표 2 참조). 각각의 면접에 소요되는 시간 차이가 면접에서 회상되는 전체 반응수 혹은 정반응수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반응시간을 토대로 면접유형(인지/표준)과 연령(4세/6세)으로 변량분석한 결과, 면접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났으나,  $F(1, 80)=26.34, p < .001$ , 연령에 따른 주효과도 없었으며,  $F(1, 80)=3.30, n.s.$ , 면접유형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F(1, 80)=0.00, n.s.$  그러나 전체 결과의 검증력을 높이기 위해서 반응시간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정반응수, 오반응수, 꾸민반응수의 평균

( )은 표준편차

| 면접유형  | 인지면접           |                 | 표준면접            |                |
|-------|----------------|-----------------|-----------------|----------------|
| 연령    | 4세             | 6세              | 4세              | 6세             |
| 정반응수  | 8.29<br>(3.58) | 10.79<br>(3.81) | 10.57<br>(4.82) | 8.91<br>(3.41) |
| 오반응수  | 1.67<br>(1.15) | 1.74<br>(1.41)  | 2.71<br>(1.98)  | 2.87<br>(1.91) |
| 꾸민반응수 | 0.62<br>(1.16) | 0.47<br>(0.90)  | 0.71<br>(1.45)  | 0.39<br>(0.66) |

( )은 표준편차

### 회상된 정반응, 오반응과 꾸민 반응

반응시간을 공변인으로 하여, 면접유형(인지/표준)과 연령에 대한 이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반응수, 오반응수와 꾸민 반응수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 정반응수

공변량분석 결과, 정반응수에 있어서 반응시간에 따른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F(1, 79)=8.50, p < .01$ . 그 결과, 면접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없었으며,  $F(1, 79)=2.81, n.s.$ , 연령에 따른 주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79)=1.13, 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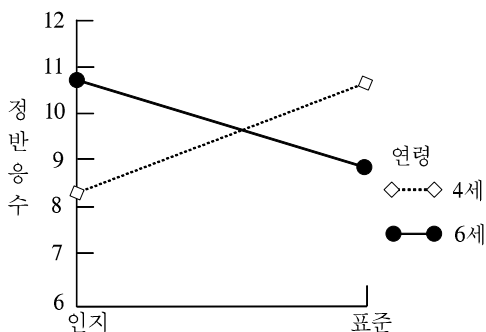


그림 1. 면접과 연령에 대한 정반응수

면접유형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79)=6.32, p < .05$  (그림 1 참조). 이에 면접유형과 연령간 상호작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지 면접에서 6세 아동들이 4세 아동들보다 정반응을 유의하게 더 많이 회상하였고,  $F(1, 38)=4.59, p < .05$ , 표준 면접에서 두 연령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42)=1.75, n.s.$  또한 4세의 경우에 인지 면접과 표준 면접간 수행의 차이가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였고,  $F(1, 40)=3.04, p = .08$ , 6세의 경우에 면접유형간 수행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40)=2.83, p = .10$ .

즉 인지 면접에서 6세 아동들은 4세 아동들보다 더 정확한 반응을 회상할 수 있었으며, 4세 아동들은 표준 면접에서 더 정확한 반응을 회상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그러나 6세 아동들의 경우에 면접간 수행의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 오반응수

면접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주효과가 있었으나,  $F(1, 79)=9.09, p < .01$ , 연령에 따른 주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고,  $F(1, 79)=0.21, n.s.$ , 면접유형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79)=0.01, n.s.$  즉 인지 면접을 받았던 아동들이 표준 면접을 받았던 아동들보다 오반응수가 유의미하게 더 적었다.

#### 꾸민 반응 수

면접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주효과가 없었고,  $F(1, 79)=0.10, n.s.$ , 연령에 따른 주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고,  $F(1, 79)=0.72, n.s.$  면접유

형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79)=0.13, n.s.$

표 4. 사람, 사물, 사건 범주별, 정반응수의 평균  
( )는 표준편차

| 면접유형 | 인지면접           |                | 표준면접           |                |
|------|----------------|----------------|----------------|----------------|
| 연령   | 4세             | 6세             | 4세             | 6세             |
| 사람   | 2.05<br>(1.16) | 2.74<br>(1.41) | 2.19<br>(1.78) | 2.65<br>(1.23) |
| 사물   | 1.62<br>(1.12) | 1.47<br>(0.84) | 3.29<br>(1.55) | 2.17<br>(1.40) |
| 사건   | 4.62<br>(2.75) | 6.58<br>(3.06) | 5.10<br>(3.02) | 4.09<br>(2.31) |

#### 회상된 정반응의 하위범주에 대한 분석

회상된 정반응수는 사람, 사물, 사건 범주를 합한 개수로 이 범주에 따른 면접유형과 연령의 차이를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어떤 면접 유형이 아동의 정반응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역시, 반응시간을 공변인으로 하여, 면접유형(인지/표준)과 연령에 대한 이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람, 사물, 사건 범주의 정반응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 사람범주 정반응수

공변량분석 결과, 사람 정반응수에 있어서 반응 시간에 따른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F(1, 79)=9.24, p < .01$ . 그 결과, 면접유형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F(1, 79)=2.59, n.s.$ , 연령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미하였다,  $F(1, 79)=6.29, p < .05$ . 4세 아동들은 평균 2.12개를, 6세 아동들은 평균 2.69개를 유의미하게 더 많이 회상하였다.

면접유형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79)=0.13, n.s.$  즉 인지 면접과 표준 면접간의 수행의 차이는 없었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 범주에 대한 정반응수는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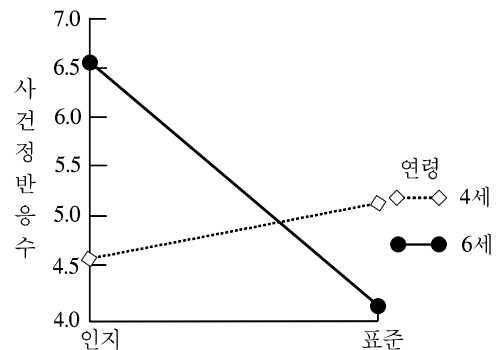


그림 2. 면접과 연령에 따른 사건 정반응수

##### 사물범주 정반응수

면접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주효과가 있었으며,  $F(1, 79)=15.99, p < .001$ , 연령에 따른 주효과도 유의미하였다,  $F(1, 79)=4.34, p < .05$ . 즉 인지 면접(1.55)보다 표준 면접(2.70)에서, 6세 아동들(1.86)보다 4세 아동들(2.45)이 사물 범주에 대한 정반응수가 많았다.

면접유형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79)=2.98, n.s.$  즉 4세와 6세 아동들 모두 인지 면접을 받았을 때보다 표준 면접을 받았을 때에 사물의 정반응수가 더 많았고, 6세보다 4세 아동들이 사물 범주 정반응을 더 많이 회상하였다.

##### 사건범주 정반응수

공변량분석 결과, 사건 정반응수에 있어서 반응 시간에 따른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F(1, 79)=4.96, p < .05$ . 그 결과, 면접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F(1, 79)$

=0.12, *n.s.*, 연령에 따른 주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79)=1.47$ , *n.s.*

면접유형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였다,  $F(1, 79)=6.18$ ,  $p < .05$ (그림 2 참조). 이에 면접유형과 연령간 상호작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지 면접에서 6세 아동들이 4세 아동들보다 사건범주의 정반응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회상하였고,  $F(1, 38)=4.55$ ,  $p < .05$ , 표준 면접에서 연령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42)=1.56$ , *n.s.* 또한 4세의 경우 면접유형간 수행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F(1, 40)=0.28$ , *n.s.*, 6세의 경우에는 인지 면접과 표준 면접간 수행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F(1, 40)=9.02$ ,  $p < .01$ .

즉 6세 아동들은 표준 면접을 받았을 때보다 인지 면접을 받았을 때에 사건 범주의 정반응을 훨씬 더 많이 회상할 수 있었던 반면, 4세 아동들은 인지 면접을 받았을 경우나 표준 면접을 받았을 경우 사건 범주의 정반응을 회상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만 4세, 6세 아동들이 각자의 교실에서 낯선이의 방문을 경험한 뒤에 그 사건에 대한 회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실험실의 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는 인지 면접과 전통적인 경찰의 표준 면접을 적용할 경우, 아동들의 기억의 정확성을 살펴보고 인지 면접 절차의 유용성과 제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 면접을 받았을 경우에, 6세 아동들은 4세 아동들보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반응을 더 많이 회상하였다. 4세 아동들의 경우에는 인지 면접보다 표준 면접을 받았을 때에 더 정확한 반응을 산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경미한(marginal) 유의성을 나타냈다. 즉 어떤 사건을 경험한 뒤에 정확한 정보를 회상해내는 데에 있어서, 인지 면접이 4세 아동들보다 6세 아동들에게는 더 유용하였다.

둘째, 4세, 6세 아동들 모두 인지 면접을 받았을 경우에 표준 면접을 받았을 경우보다 부정확한 반응을 유의미하게 적게 회상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6세 아동들이 인지 면접을 받았을 때에 4세 아동들보다 정확한 반응의 회상이 더 많았고, 4세 아동들은 인지 면접을 받았을 때보다 표준 면접을 받았을 때에 정확한 반응을 경미하게 더 회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결과는 아동들에게서 인지 면접의 효과를 증명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Chapman & Perry, 1995; Geiselman & Padilla, 1988; Hayes & Delamothe, 1997; Holliday, 2003; Saywitz, Geiselman & Bornstein, 1992)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6세 아동들에게서만 인지 면접의 효과가 검증된 본 연구와 위에 언급한 선행연구들과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Geiselman과 Padilla(1988)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7세 12세의 연령을 전체로 살펴보았고, Hayes와 Delamothe (1997)는 5세 7세, 9 11세를 대상으로 2년 정도의 연령을 합쳐서 살펴보았으며, Saywitz, Geiselman 및 Bornstein(1992)의 연구 대상도 7 8세와 10세 11세 아동들이었다. 결국, 아동들의 연

령범위가 광범위하거나 2년 정도의 연령을 합침으로써 인지 면접의 효율성은 검증되었으나 각 연령에서 나타나는 아동들의 발달적 특징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4세 아동들에 대한 인지 면접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4세 아동들에게 인지 면접을 사용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한 선행연구들(Chapman & Perry, 1995; Holliday, 2003)의 결과와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연구에서 어떤 인지 면접 절차를 사용했는지, 정반응을 어떻게 평정했는지와 관련된다. Holliday(2003)의 연구에서는 개정판 인지 면접 절차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이 어린 아동들에게 가장 어렵고 문제가 되는 관점바꾸기 지시사항을 제외시킴으로 면접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Chapman과 Perry(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녹화재료는 2대의 자동차가 좁은 길에서 사고를 겪는 장면으로 특정 목표가 아닌 사건전체를 정반응으로 평정하고 있다. 결국 사건전체를 정반응으로 분류하여 인지 면접의 유용성이 확인되었으며 낯선이와 관련된 것만을 정반응으로 분류한 본 연구보다 더 많은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나이 어린 아동들이 목격자 경험을 한 이후 낯선이와 관련된 부분만을 엄격하게 정반응으로 분석하였고, 자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건에 대한 회상을 검증한 Chapman 등(1995)의 연구와 실생활에서 낯선이의 방문을 경험한 후의 회상을 살펴본 본 연구가 4세라는 동일한 연령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정판 인지 면접 절차를 그대로 실시한 결과, 4세 만큼 나이

어린 아동들에게는 4가지 인출 전략의 잊점이 모두 동등하게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유아기 및 아동기 전기의 인지 발달의 진전은 약 6개월의 시기라도 발달 과정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세분화하여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을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위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아동들에게 인지 면접을 적용하여 그 효율성은 검증하였으나, 인지 면접 절차 중의 하나인 관점 바꾸기와 같은 조망 변화에 대해서는 아동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아동들에게 인지 면접을 적용할 경우에는 더 많은 수정과 경우에 따라서는 관점 바꾸기와 같은 지시사항은 제외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Loochs, presentation at the Sixth European Conference of Law and Psychology, Siena, 1996; McCauley & Fisher, 1995), Holliday (2003)는 아동에게 인지 면접 절차 중 관점바꾸기 지시사항을 제외한 뒤에, 인지 면접 절차를 적용하여 그 회상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조망수용 능력이나 마음의 이론과 같은 발달 문헌(Fravell, 1987; Bretherton & Beebhly, 1982)에서 밝히고 있듯이, 아동기 초기의 아동들에게 상징적 표상기술이 자리잡기 시작하여 가장놀이나 상징놀이들이 활발하게 나타나며, 마음의 표상을 새롭게, 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4세 정도의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표상하지 않은 상황이나 과제를 이해하거나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그들의 숙련되지 않은 조망수용능력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기에 아직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의

반응을 살펴봐도, 4세의 경우에는 '역순' 지시사항에 대한 수행이 9명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관점바꾸기 지시사항은 5명의 아동만이 가능했으며, 관점을 전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과 분리시키지 못하고 설명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6세에 이르러야 12명 정도의 아동이 관점바꾸기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할 수 있었다. 즉 6세보다 어린 4세 경에는 관점바꾸기를 자유자재로 전환할 만큼 인지적인 가역성이 숙련되지 않은 상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지 면접 절차에 있어서 세부 지시사항에 대한 더 구체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수정 방안의 필요성이 제안될 만하다.

최근에, 나이 어린 아동들에게 여러 방법을 도입하여 그들의 회상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Bowen과 Howie(2002)는 72명의 4세 6세 아동을 대상으로 면접할 때에 맥락과 단서를 제시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동들에게 사건을 목격하게 한 뒤에, 맥락 회복 조건, 이야기 정교화 조건, 맥락 회복과 이야기 정교화 조건, 통제 조건에 따라 면접하였다. 그 결과, 맥락 회복 조건과 이야기 정교화 조건이 통제 조건보다 오류를 증가시키지 않고 더 많은 정확한 회상을 이끌어냈다. 또한 자유회상에서는 이야기식 정교화가 통제집단보다 훨씬 더 우수하였음을 밝혔다. 따라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 면접에서는 이야기식 정교화 과정에 맥락 회복 과정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동의 기억에 가치있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재연과 정영숙(1998)이 3세, 5세, 7세 아동 126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시의 회상 정

확성을 살펴보고, 이차 아동에 대한 회상 정확성과 관점 전환능력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차 아동은 4세 발 및 연구가 시급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둘째, 4세와 6세 각각의 연령에서 정확한 회상에 대한 인지 면접의 효율성과 제한점이 밝혀진 데에 덧붙여서, 오반응수에 있어서는 두 연령 모두에서 인지 면접의 효과가 밝혀졌다. 인지 면접이 표준 면접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오반응수를 적게 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반응율도 유의미하게 적었다. 이것은 인지 면접 절차의 잇점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인지 면접 세부절차가 4세나 6세 아동들처럼 나이 어린 아동들의 인지발달 수준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경찰 면접, 반복 질문, 폐쇄형 질문이나 암시가 내포된 질문이 지니고 있는 불필요한 질문이 아동으로 하여금 부정확한 반응이나 오류를 산출하는 것에 반해서(박자경 등, 1999), 인지 면접은 세부 절차에 포함된 질문을 중심으로 함으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반대로, McCauley와 Fisher(1995)의 초등학교 2학년 아동 대상의 연구에서는 표준 면접을 받았던 아동들보다 인지 면접을 받았던 아동들이 부정확한 사실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산출했었다. 따라서 인지 면접으로 산출된 정보가 전통적인 표준 면접 방법으로 산출된 정보보다 더 정확하거나 더 신뢰롭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진술들이 다른 신뢰로운 정보들과 함께 확인되어야 하고 다양한 사실들이 공통된 해결방안으로 수렴되는 지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들보다 인지 면접을 받았을 경우에 표준 면접을 받았을 때보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회상이 있었던 반면, 4세 아동들은 인지 면접과 표준 면접과의 수행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사건 범주는 낮선이의 사건과 관련된 움직임이나 내용, 타인과의 접촉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Holliday (2003)의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반응 중 행위 범주와 유사하며 인지 면접 효과가 입증된 결과와 일관성이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 범주의 정반응이 더 많이 회상되었고, 사람과 사물범주에 대한 정반응은 4세나 6세 아동들 모두 인지 면접보다 표준 면접에서 더 많이 회상하였다. 이는 회상되는 정보의 양에 있어서 연령의 효과를 나타내주며 사람과 사물과 같은 세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질문을 더 많이 묻게 되는 표준 면접이 좀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반영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사건에 대해 얻고자 하는 정보나 목표 대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면접 기법이 구체적으로 다를 수도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 같다.

본 연구는 만 4세 5세와 6세 아동들에게 어떤 상황을 목격하게 한 뒤에 그 사건을 회상하는 데에 있어서, 그들이 75%이상으로 정확한 회상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런 결과는 나이 어린 아동들의 목격 진술이나 증언이 그만큼 정확성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실증적인 의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6세 아동들이 4세 아동들보다 실험실 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는 인지 면접에서 더 정확한 정보의 회상이 있었으며, 4세 5세 아동들의 경우는 인지 면접을 받았을 때보다는 표준

면접을 받았을 때에 더 정확한 정보를 산출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6세 아동들이 인지 면접을 받든 표준 면접을 받든 정반응수에 있어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인지 면접이 표준 면접보다 월등하게 많은 정반응을 산출하지 못했다. 이는 4세 5세 아동이 있는 유치원 상황과 6세인 초등학교 학급에서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유치원 학급의 경우는 20명 내외의 아동이 있는 반면 초등학교 학급은 32명 내외의 아동이 있기 때문에 학급의 인원수가 다름으로 인해서, 아동들을 충분히 면접하기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아동들이 모두 동일한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적게는 73%에서 많게는 84%이상으로 정확하게 정보를 회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지 면접 절차는 아동들의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회상을 표준 면접(22%)에 비해 14%나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결론적으로, 만 4세 6세라는 시기가 인지 면접 절차에서 요구되는 모든 지시사항을 충분하게 이해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는 동시에, 발달적인 수준을 고려하고 오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인지 면접의 잇점을 고려한 인지 면접 절차의 수정이나 새로운 면접 기법의 개발을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상황에 대한 회상에 초점을 두다 보니, 낮선이가 위협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은 비교적 정서적인 개입이 덜 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낮선이가 많은



아동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끌지 못하여 참여자의 손실이 있었으며, 유치원이나 학교의 정해진 시간으로 인해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을 뿐 아니라, 정서적인 개입이 있는 실제의 범죄현상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으면서도 정서적인 개입과도 관련되고 아동들의 주의를 쉽게 끌 수 있는 상황 설정으로의 확대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 참 고 문 헌

- 김준호, 김선애 (1997). 아동 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 청소년 연구, 26**, 전기.
- 박자경, 이승복 (1999). 유도 질문이 아동 진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발달, 12**, 54-71.
- 이재연, 정영숙 (1998). 아동 증언의 신뢰성 판단에 대한 발달적 접근. **한국 아동학회;아동권리연구, 2**, 75-90.
- SBS (2003.3.22). 그것이 알고 싶다-제 244회 기획 안, **法**이란 이름의 폭력-성폭행 피해 아동의 인권침해.
- Bauer, P., & Wewerka, S. (1997). Saying is revealing: Verbal expression of event memory in the transition from infancy to early childhood. In P. van den Broek, P. J. Bauer, & T. Bourg(Eds.), *Developmental spans in event comprehension and representation: Bridging fictional and actual events*(pp. 139-168). Hillsdale, NJ: Erlbaum.
- Bowen, C. J., & Howie, P. M. (2002). Context and cue cards in young children's testimony: A comparison of brief narrative elaboration and context reinstate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 1077-1085.
- Bretherton, I., & Beeghly, M. (1982). Talking about internal states: *The acquisition of an explicit theory of mind. Developmental Psychology, 18*, 906-921.
- Brown, A. (1975). The development of memory: Knowing, knowing about knowing, and knowing how to know. In H. W. Reese (Ed.),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10, pp. 103-152). New York: Academic Press.
- Bruck, M., Ceci, S. J., Francoeur, M., & Barr, R. J. (1995). "I hardly cried when I got my shot!": Influencing children's reports about a visit to their pediatrician. *Child Development, 66*, 193-208.
- Ceci, S. J. & Bruck, M. (1993). The suggestibility of the child witness: A historical review and syn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3*, 403-439.
- Ceci, S. J., Ross, D. F., & Toglia, M. P. (1987). Suggestibility of children's memory: Psycholegal impl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16*, 1, 38-49.
- Chapman, A. J., & Perry, D. J. (1995). Applying the cognitive procedure to child and adult eyewitnesses of road accident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4*, 283-294.
- Chi, M. T. H., & Ceci, S. J. (1986). Content knowledge and the reorganization of memory.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20*, 1-37.
- Dent, H. R. (1982). The effects of interviewing strategies on the results of interviews with child witnesses. In A. Trankell(Ed.). *Reconstructing the past*(pp. 279-297). Netherlands: K. H. Aver.
- Fisher, R. P., & Geiselman, R. E. (1992). *Memory-enhancing techniques for investigative interviewing - The Cognitive Interview*.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Fisher, R. P., Geiselman, R. E., Raymond, D. S., Jurkevich, L. M., & Warhaftig, M. L. (1987).

- Enhancing enhanced eyewitness memory: Refining the cognitive interview.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5, 291-297.
- Fivush, R. (1998). Children's recollections of traumatic and nontraumatic ev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 699-716.
- Flavell, J. H. (1986).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knowledge about the appearance-reality distinction. *American Psychologist*, 41, 418-425.
- Flavell, J. H. (1988).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knowledge about the mind : From cognitive connections to mental representations*. In J. W. Astington, P. L. Harris, & D. R. Olson(Eds.), *Developing theories of mi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yes, B. K., & Delamothe, K. (1997). Cognitive interviewing procedures and suggestibility in children's recal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 562-577.
- Geiselman, R. E., Fisher, R. P., Firstenberg, I., Hutton, L. A., Sullivan, S. J., Avetissian, I. V., & Prosk, A. L. (1984). Enhancement of eyewitness memory: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cognitive interview.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2, 74-80.
- Geiselman, R. E., Fisher, R. P., MacKinnon, D. P., & Holland, H. L. (1985). Eyewitness memory enhancement In the police interview: Cognitive retrieval mnemonics versus hypno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0, 401-412.
- Geiselman, R. E., Fisher, R. P., MacKinnon, D. P., & Holland, H. L. (1986). Enhancement of eyewitness memory with the cognitive inter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99, 385-401.
- Geiselman, R. E., & Padilla, J. (1988). Cognitive interviewing with child witnesses.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6, 236-242.
- Gray, E. (1993). *Unequal justice : The prosecution of child sexual abuse*. New York: Macmillan.
- Holliday, R. E. (2003). The effect of a prior cognitive interview on children's acceptance of misinformation.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7, 443-457.
- King, M. A., & Yuille, J. C. (1987). Suggestibility and the child witness. In S. J. Ceci, M. P. Toglia, & D. F. Ross (Eds.), *Children's eyewitness memory* (pp. 24-35). New York: Springer-Verlag.
- Leichtman, M. D., & Ceci, S. J. (1995). The effects of stereotypes and suggestion on preschooler's report. *Developmental Psychology*, 31, 568-578.
- Loftus, E. F. (1979). *Eyewitness Mem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oftus, E. F., & Davis, G. M. (1984). Distortions in the memory of children. *Journal of Social Issues*, 40, 51-67.
- McCauley, M. R., & Fisher, R. P. (1995). Facilitaing children's eyewitness recall with the revised cognitive inter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0, 510-516.
- Marin, B. V., Holmes, D. L., Guth, M., & Kovac, P. (1979). The potential of children as eyewitness. *Law and Human Behavior*, 3, 295-305.
- Memon, A., Cronin, O., Eaves, R., & Bull, R. (1993). The cognitive interview and child witnesses. In N. Clark & G. M. Stephenson (Eds.), *Children, evidence and procedure*(pp. 3-9). Leicester, England: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 Milne, R., & Bull, R. (in press). Does the cognitive interview help children to resist the effect of suggestive questioning? *Legal & Criminological Psychology*.
- Nelson, K., & Gruendel, J. M. (1981). Generalized event representations: Basic building blocks of cognitive development. In M. E. Lamb & A. L.

- Brown(Eds.), *Advances in development psychology* (Vol. 1, pp.131-158). Hillsdale, NJ: Erlbaum.
- Piaget, J. (1969). *The child's conception of tim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Pressley, M., & Levin, J. (1980). The development of mental imagery retrieval. *Child Development*, 51, 558-560.
- Saywitz, K. J. (1987). Children's memory: Age-related patterns of memory errors. In S. J. Ceci, M. P. Toglia, & D. F. Ross(Eds.). *Children's eyewitness memory* (pp. 36-52). New York: Springer-Verlag.
- Saywitz, K. J., Geiselman, R. E., & Bornstein, G. K. (1992). Effects of cognitive interviewing and practice on children's recall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 744-756.
- Schneider, W., & Pressley, M. (1989). *Memory development between two and twenty*. New York: Springer-Verlag.
- Weinert, F., & Perlmutter, M. (1988). *Memory development: Universal chang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Hillsdale, NJ: Erlbaum.
- Wells, G. L. (1978). Applied eyewitness testimony research: System variables and estimator variab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546-1557.
- Yarmey, A. D. (1979). *The psychology of eyewitness testimony*. New York: Free Press.
- Zaragoza, M. (1987). Memory, Suggestibility, and eyewitness testimony in children and adults. In S. J. Ceci, M. P. Toglia, & D. F. Ross(Eds.). *Children's eyewitness memory* (pp. 52-78). New York: Springer-Verlag.

## Usefulness of cognitive interview on the recall of event memory with younger children

Young - Min Kwon      Choon - Jae Lee  
Dep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goal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cognitive interview on children's recall. Cognitive interview is a memory retrieval procedure based on laboratory principles of cognitive psychology, and is used to facilitate the completeness and accuracy of eyewitness' reports(testimony). Eighty four 4- and 6-year-old children had experienced stranger's visit in their class, followed by cognitive or standard interview on the stranger's visit. Results indicated 6-years-old receiving the cognitive interview recalled significantly more correct informations than the 4-years-old receiving the cognitive interview, and 4-years-old children receiving the standard interview recalled marginally more correct informations than did 4-years-old receiving the cognitive interview. In addition, both 4- and 6- year-olds recalled significantly less incorrect informations when they received cognitive interview. Usefulness as well as limitations of the cognitive interview technique with younger children were discussed. Future research should contribute development of appropriate interviewing techniques that can be used with younger children in forensic setting.

*Keywords: children's memory development, event memory, recall, cognitive interview, standard interview*